

탁 트인 인왕봉 정상 '환호'...꽉 막힌 군부대가림막 '아쉬움'

57년만에 정상 상시개방 무등산 가보니

“무등산 정상부에 자유롭게 오를 수 있어 더 자주 찾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완전한 개방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23일 오전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광주시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이날 인왕봉 길을 상시 개방하자 첫 등정하려는 인파였다. 인왕봉 개방은 지난 1966년 방공포대 주둔 이후 57년만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광주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무등산 정상 개방이 드디어 실현됐다. 57년 동안 제한됐던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무등산이 오래도록 광주 시민의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과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왕봉 상시 개방을 추진했다. 상시 개방된 구간은 정상부 전봉우리(천왕 1187m·지왕 1180m·인왕봉 1140m)가 아니라 인왕봉이다. 시는 기존 군부대 철책으로 막혀있던 서석대부터 인왕봉 구간(390m)에 목재 계단 등을 설치하고 새길을 냈다.

일찍이 도착해 삼삼오오 모인 등산객들은 인왕봉 직접 코스인 서석대에 모여 앉아 들뜬 표정으로 준비해 온 떡과 김밥 등을 먹으며 오전 10시 정상부문이 열릴지 기다리고 있었다.

긴 기다림 끝에 정상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철거되자 입구에서 대기하던 시민들은 환호했다.

부산에서 온 김명진(48)씨는 “백두대간을 모두 올랐을 만큼 등산을 좋아해 전날 증심사 인근 숙소에서 묵으며 무등산 정상부를 보러 왔다”며 “인왕봉까지 오를 수 있어 앞으로 더 무등산을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무등산 정상 전면 개방이 아

서석대~인왕봉 새 길 내고 개방

“무등산 더 자주 찾을 것” 들며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 보내

등산길 폭 1.8m로 비좁아 불편 탐방로 이어지지 않아 ‘유턴 하산’ 군부대 이전해 전면 개방됐으면

니어서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강기정 시장이 지난해 한시 개방 당시 무등산에서 밝힌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주말마다 산에 오른다는 박정수(56)씨는 “하루 빨리 군부대가 이전해 무등산 정상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등산길이 협소해 위험하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실제 인왕봉까지의 길이 최대 폭이 1.8m로 좁은 탓에 입장은 380명으로 제한됐다. 입구에서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산객 수를 제한해 인왕봉에서 내려오는 인원만큼 입장이 가능했다. 출입 인원제한 때문에 엄마 손을 놓친 아이 등이 입구에서 당황하며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인왕봉 구간을 올라보니 길의 폭이 좁아 성인 두 명이 서 있기에는 비좁았다. 등산객이 오르내리는 양 방향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일부 구간에서는 등·하산객이 줄을 서 대기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줄 서서 산에 올라가는 건 처음이라”며 푸념했다.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인왕봉이 개방됐으나 군부대 때문에 정상으로 오르는 길을 되돌아 내려오는 폐쇄형 등산로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길목이 다소 험해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하는 구



무등산 정상부 상시 개방이 시작된 23일 인왕봉으로 향하는 계단 한쪽면에 높이 3m, 길이 90m에 달하는 공군기지 보안을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간도 있는 데다 자칫하면 바로 옆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도 있었지만 안전펜스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인왕봉 정상으로 오르는 목재 계단 한쪽은 공사장 가림막처럼 시야를 방해했다. 공군기지 방호를 위해 대형 가림막(높이 3m, 길이 90m)을 설치해 ‘답답하다. 무등산의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방해물’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 시민은 “앞서 일년에 두차례 개방할 때는 군부

대 후문을 통과해 지왕봉과 인왕봉 모두 볼 수 있었는데 그때의 아름다운 풍경은 공군기지 가림막 때문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막아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풍경 사진을 찍던 한 등산객이 철조망 방향으로 사진기를 갖다대자 국립공원 관계자가 큰 소리로 “공군기지 방향으로 사진 찍으면 안된다”고 제지했다.

채준연(73)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교학처장은 “정상부 개방 소식에 한결같이 달려왔는데 한켠에 가림막이 쳐져 있어 뺨뺨한 정상이 눈 앞에 있어도 답답한 기분이 든다”며 “하루빨리 전면개방이 돼서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날 하루 무등산을 찾은 등산객은 8630명으로, 인왕봉 탐방객은 1293명으로 집계됐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풍영정천 초등생 2명 의사 사건’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도 책임

광주시법 4억4천만원 배상 판결

광주시 광산구 풍영정천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하천관리 주체인 광주시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시법 민사13부(부장판사 임태혁)는 풍영정천 사당 초등학생 2명의 유족 7명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21년 6월 풍영정천에서 숨진 2명의 초등학생의 부모와 형제들이다.

유족 측은 “하천 관리주체인 광주시가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천을 따라 공원·산책로 징검다리 등 조성돼 있고 인근에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고 어린이의 경우 익사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징검다리 인근은 수심이 20~40cm로 깊지 않으나 약 15m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음에도 광주시는 깊은 수심을 알리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구조장비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모들도 초등학생인 피해자 자녀들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않도록 할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주시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업 중 여교사에 발길질 광양서 중학생 강제 전학

광양에서 한 중학생이 체육 수업 도중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여교사에게 발길질을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광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학생 A군에 대해 강제 전학 권고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일 체육 수업에서 B교사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B교사가 재차 “(체조를) 같이 하자”고 재촉하자, A군은 B교사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군과 B교사를 분리 조치했다. B교사에게는 특별휴가를 주고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보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심야 응급실만 찾아 진료 받거나 입원 215회 보험금 탄 30대 징역 8월 선고

심야 응급실만을 찾아 진료를 받거나 입원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30대 손해사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시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정의정)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월부터 6월까지 응급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응급실을 찾아 진료받는 등 총 210회에 걸쳐 보험사들로부터 21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5회에 걸쳐 입원을 해 보험금 10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응급실 진료비 수당과 입원 진료비 등을 지급해주는 5개 보험에 중복가입한 후 반복적으로 휴일 또는 병원 외래진료가 종료된 시각에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

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험이 일반 외래 진료보다 응급실 진료비 등 보험금을 높게 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가벼운 복통 등을 이유로 매일 또는 하루 이틀 건너 새벽 또는 심야 주말에 응급실을 찾았다. A씨가 찾은 광주지역 응급실은 총 12곳에 달했다. A씨는 의료진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검사나 처치를 권유해도 약간 처방 받고 귀가하기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응급실에 갈 정도의 부상이나 질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 목적보다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여러 병원에서 응급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수집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보험제도의 신뢰를 저해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